

【添付】 2月の今月の在外同胞 黄孔煥



故・黄孔煥（1921～1986）

前 神戸商銀 理事長

黄孔煥理事長は在日同胞1世で、1921年に慶尚北道亀尾で生まれた、日本に渡って神戸市で定着し、神港商業学校を卒業した。1945年に「ミリオン観光」という株式会社を創立、86年まで会社を率いた。黄孔煥理事長は神戸地域を中心に活動し、社会的経済的に厳しい環境の中にありながらも成功を収め、神戸商銀理事長を歴任し、在日同胞社会の発展と権益向上のために献身してきたのみならず、祖国の発展のためにも惜しみなく支援した。

駐神戸大韓民国総領事館庁舎の寄付を主導

当時の在日同胞らは、狭くてみすぼらしい公館で厳しい状態で働いているのを残念に思い、「大韓民国の顔である公館をこんなみすぼらしいままにしておいてはだめだ」という思いを一つにした。1962年に故徐甲虎・邦林紡績会長が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の建物と敷地を政府に寄贈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在日同胞は日本で大韓民国公館建立のための募金運動などを繰り広げ、公館建立のために一肌脱いだ。黄孔煥理事長もそのうちの一人だった。

彼は1960年に「駐神戸大韓民国公館屋舎建立委員会」の委員長になって公館募金運動を主導し、基金づくりの先頭に立った。「駐神戸大韓民国公館屋舎建立委員会」は当時、兵庫県阪神地域に居住する資産家30～40人から基金を集め、地域の民団団員らをはじめ在日同胞から少しずつ集めていた。その結果、1965年までに約3500万円を募金し、明治時代に有名な旅館として使われていた建物（地下1階、地上3階）と土地を「山口自転車」社から購入した。その後、委員会は1967年8月に大韓民国政府にその購入した建物と土地を寄贈し、駐神戸総領事館がその建物に移転、現在に至るまで庁舎として使用している。



寄贈当時の駐神戸総領事館の建物
(出典：駐神戸総領事館)



公館移転記念式
(出典：駐神戸総領事館)



公館移転記念式で記念辞を述べる黄孔煥団長
(出典：駐神戸総領事館)

在日同胞社会および母国のための寄付活動

黄孔煥理事長は在日民団中央本部顧問などを歴任して民団の組織化や在日同胞の権益向上に寄与した。彼は地域在日同胞らの中心的な役割を担い得る場所が必要だと考え、そうして兵庫在日韓国人会館の建立を推進した。彼は兵庫在日韓国人会館の建設に6千万円を寄付し、在日韓国人会館設立に力を注いだ。兵庫在日韓国人会館は現在も地域在日同胞の韓国語教育や在日同胞行事などの会合の場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

彼の寄付は在日同胞社会にとどまらなかった。彼は母国の厳しい状況に目を背けることなく、様々な寄付活動を通じて母国の発展に寄与した。1960年代、わが国は戦後の復旧事業を進め、農村の近代化やインフラ改善のために外国からの借款と在外同胞の支援に依存していた。そうした状況で黄孔煥理事長は大韓民国警察に125ccオートバイ15台を寄贈し、本人の故郷である慶尚北道善山郡亀尾面に農機具を寄付するなど、母国の発展のために力を注いだ。

1981年に「88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開催」が決まり、在日同胞は在日民団を中心にして「88ソウルオリンピック成功開催」のために力を合わせた。民団では1982年に「ソウルオリンピック在日韓国人後援会」を結成、民団中央本部を筆頭に地方本部を稼働させて募金運動を活発に展開し、オリンピック推進委員の委嘱を通じて同胞有志の参加を促進した。黄孔煥理事長は後援会活動に積極的に加わっただけでなく、ソウルオリンピック組織委に1億円を寄付し、「88ソウルオリンピック」成功開催の一助とした。

韓日両国関係向上および母国経済発展に寄与

1950年代、在日同胞の商工人らは日本の金融機関の差別的な資金融資に苦しんでいた。そうした状況で在日同胞の生活安定や事業資金の支援、経済的成長などを支援するために、日本内で民族金融企業が設立された。「神戸商銀」もその中のひとつで、彼は「神戸商銀」の理事長を歴任し、地域在日同胞企業家らの経済的基盤を強化することに寄与した。

また1975年から韓国政府が始めた「母国訪問事業」に関し、朝鮮総連の妨

害で故国に訪問できずにいた朝鮮総連系在日同胞に、黄孔煥理事長は低利で彼らに資金を貸し、秋夕（※旧盆）墓参団として母国訪問が可能となるよう支援し、1976年に58人の在日同胞を引率して秋夕墓参団として母国を訪問している。

黄孔煥理事長は「新韓銀行」の設立に寄与し、母国の経済発展に貢献した。1965年に韓日国交正常化がなしとげられて母国への投資の道が開かれ、在日同胞企業家らの韓国への進出も活気を帯びた。しかし母国への投資の道は困難で、最も難しい問題は金融だった。韓国の市中銀行が在日同胞らには融資をしてくれなかったので事業資金を作ることが難しく、それ故、母国での銀行設立が彼らの宿願事業のひとつだった。「在日韓国人本国投資協会」会長の李熙健が中心となって「在日韓国人銀行設立推進委員会」を結成、1981年7月に僑民銀行設立発起人大会を皮切りに僑民銀行の設立に着手した。発起人は全部で19人だったが、黄孔煥理事長もそのうちの一人だった。その後、発起人は40人で構成される「銀行設立委員会」へと発展し、黄孔煥理事長は神戸地域の代表として委員会に加わった。彼らが5憶から10億ウォンずつ出資金を出し、これは銀行設立の立ち上げ金となった。1981年に正式に認可され、1982年7月に初めて、100%在日同胞による純粋民間資本で設立された「新韓銀行」ができた。

また彼は韓日経済協会の監事、韓日友好親善協会の副会長などを歴任し、韓日両国間の経済交流や友好親善関係の発展に寄与した。

韓国政府は黄孔煥理事長が在日同胞社会と母国の経済発展に寄与した功労を認め、1968年に国民勲章トンベク章、1978年に国民勲章モラン章、1986年に国民勲章ムグンファ章を授与した。



故황공환(1921 - 1986)

前 고베상은 이사장

황공환 이사장은 재일동포 1세대로 1921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다.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시에 정착하여 신항(神港)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1945년 '미리온 관광'이라는 주식 회사를 창업하였고, 86년까지 회사를 이끌었다. 황공환 이사장은 고베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고, 고베상은 이사장을 역임하며 재일동포 사회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청사 기부 주도

당시 재일동포들은 협소하고 초라한 공관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공관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대한민국의 얼굴인 공관을 이렇게 초라하게 두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962년故서갑호 방림방적 회장이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건물 및 부지를 정부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재일동포들은 일본에 대한민국 공관 건설을 위한 모금 운동 등을 펼치며 공관 건설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황공환 이사장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1960년 '주고베대한민국 공관 옥사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관 모금 운동을 주도하며 기금 조성에 앞장섰다. '주고베대한민국 공관 옥사 건립위원회'는 당시 효고현 한신 지역에 거주하는 재력가 3-40명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고, 지역 민단 단원들을 비롯하여 재일동포들로부터 한푼 두푼 모금하였다. 그 결과 1965년까지 약 3,500만 엔을 모금하였고, 메시지 시대 유명한 료칸으로 활용되던 건물(지하1층, 지상 3층)과 토

지를 '야마구치 자전거'사(社)로부터 매입하였다. 그 후 위원회는 1967년 8월 대한민국 정부에 매입한 건물과 토지를 기증하였고, 주고베총영사관이 그 건물로 이전하여 현재 까지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기증 당시 주고베총영사관 건물
(출처 : 주고베(총))



공관이전 기념식
(출처 : 주고베(총))



공관이전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는 황공환 단장
(출처 : 주고베(총))

재일동포 사회 및 모국을 위한 기부 활동

황공환 이사장은 재일민단 중앙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민단 조직화 및 재일동포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는 지역 재일동포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효고 재일한국인회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는 효고 재일한국인회관 건설에 6천만 엔을 기부하여 재일한국인회관 설립에 힘을 보탰다. 효고 재일한국인회관은 현재도 지역 재일동포들의 한국어 교육 및 재일동포 행사 등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의 기부는 재일동포 사회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모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다

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전후 복구 사업을 하며 농촌 근대화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외국 차관과 재외동포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공환 이사장은 대한민국 경찰에 125cc 오토바이 15대를 기증하였고, 본인의 고향인 경북 선산군 구미면에 농기구를 기부하는 등 모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다.

1981년 '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재일동포들은 재일민단을 중심으로 '88서울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았다. 민단에서는 1982년 '서울올림픽 재일 한국인 후원회'를 결성하여 민단 중앙본부를 필두로 하여 지방본부를 가동해 모금 운동을 활발히 벌였고, 올림픽 추진위원 위촉을 통해 동포 유지들을 참여를 촉진하였다. 황공환 이사장은 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 조직위에 1억 엔을 쾌척하며 '88서울올림픽' 성공 개최에 일조하였다.

한·일 양국 관계 향상 및 모국 경제 발전에 기여

1950년대 재일동포 상공인들은 일본 금융기관들의 차별적인 행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동포들의 생활 안정, 사업 자금 지원, 경제적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내 민족금융기업들이 설립되었다. '고베상은'도 그중 한곳으로, 그는 '고베상은'의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재일동포 기업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1975년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한 '모국방문사업' 관련, 조총련의 방해로 고국에 방문하지 못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에게 황공환 이사장은 저리(低利)로 그들에게 자금을 대부하여 추석성묘단으로 모국 방문을 할 수 있게 지원하였고, 1976년에 58여 명의 재일동포를 인솔하여 추석성묘단으로 모국에 방문하기도 했다.

황공환 이사장은 '신한은행' 설립에 기여하며 모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성사되고 모국 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재일동포 기업인들의 국내 진출도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모국 투자의 길은 험난했으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금융이었다. 한국의 시중 은행들이 재일동포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모국에서 은행설립이 이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회장 이희건이 중심으로 '재일한국인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981년 7월 교민은행 설립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교민은행을 설립에 착수하였다. 발기인은 모두 19명이었는데, 황공환 이사장도 그 중 한 명이었

다. 이후 발기인 모임은 40명으로 구성된 '은행설립위원회'로 발전하였고, 황공환 이사장은 고베 지역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각자 5-10억 원씩 출자금을 내었고, 이는 은행설립의 종잣돈이 되었다. 1981년 정식인가를 받고, 1982년 7월 최초로 재일동포들에 의한 100%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신한은행'이 설립되었다.

또한, 그는 한일경제협회 감사, 한일우호친선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일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우호 친선 관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황공환 이사장이 재일동포 사회와 모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1968년 국민훈장 동백장, 1978년 국민훈장 모란장, 198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였다.